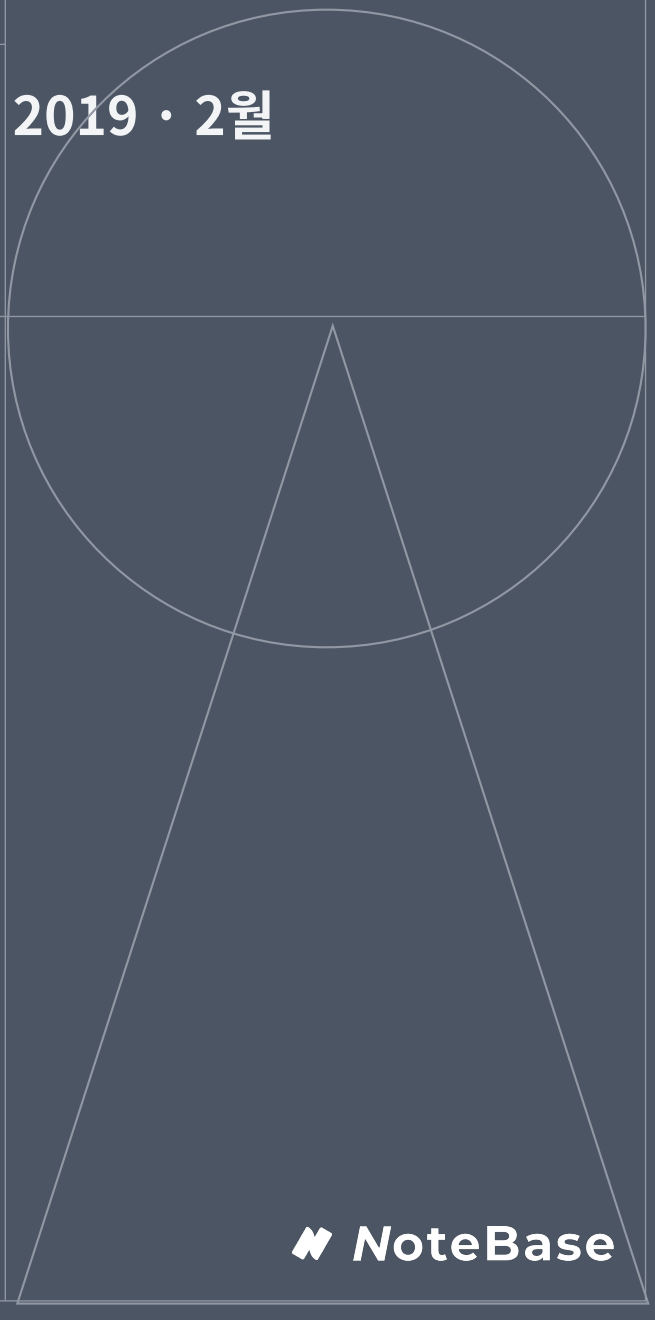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2월

문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도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 **비분절 음운(운소)**이 된다. 분절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운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다. 자음·모음처럼 나누어지는 분절 음운인 '음소'뿐 아니라, 소리의 강약·고저·장단처럼 개별 자음·모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운소'도 포함한다. 따라서 강약이나 고저가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 비분절 음운**으로 인정한다.

② O: 최소 대립쌍은 **같은 위치의 음운 하나만 달라 뜻이 구별되는 두 단어**이다. 예를 들어 '달'과 '탈'은 첫소리 'ㄷ'과 'ㅌ'만 달라 뜻이 구별되므로, 'ㄷ'과 'ㅌ'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을 조사하여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한다.

③ O: 변이음은 **하나의 음운이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 소리**이다. 예를 들어 '달'의 받침 'ㄹ'과 '다리'의 모음 사이 'ㄹ'은 실제 발음이 다르지만, 그 차이는 발음 환경에 따른 것이므로 하나의 음운 'ㄹ'의 변이음으로 본다.

④ O: 실제로 발음되어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는 '음성'이다. 이에 비해 음운은 실제 소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자가 같은 소리로 인식하며 의미를 구별하는 **관념적·추상적 단위**이다. 선지의 '기호'는 이러한 추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은 '금융 당국은'이 **'내다보면서', '예측하였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문장 안의 '내년 금리가 … 오를', '대출 이자율이 … 오를'도 각각 주어와 서술어가 알맞게 연결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장 전체의 주어는 '금융 당국은'이고, 이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내다보면서'와 '예측하였다'이다. 두 행위의 주체가 모두 금융 당국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문제가 없다. 안긴절에서도 '내년 금리가'와 '오를', '대출 이자율이'와 '오를'이 각각 호응한다.

② X: '작성 내용의 정정'과 '신청인의 서명'을 '또는'으로 연결한 뒤 '없는'으로 함께 꾸미면, '정정이 없는 서류'까지 무효라는 뜻으로 읽힌다. 정정이 있는 경우와 서명이 없는 경우를 구별하려면 각각의 서술어를 밝혀야 한다.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로 고친다.

③ X: '보여집니다'는 피동사 '보이다'에 피동 표현 '-어지다'를 다시 붙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 문맥에서는 '보이다'만으로도 예상이나 판단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로 고친다.

④ X: 앞 절의 주어는 '그의 목표는'인데, 뒤 절의 '연습을 쉬지 않았다'에 대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연습하는 주체는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므로, 뒤 절에 **주어 '그는'을 밝혀** 호응을 바로잡는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우물 안의 개구리'와 '하충의빙'은 모두 **견식이 좁음**을 비유한다. 자신이 경험한 좁은 세계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공통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듯,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없는 대로 살아감**과 **한쪽의 몰락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침**은 의미가 다르다.

② X: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평소 흔하던 물건도 막상 꼭 필요해서 찾으면 없다는 뜻이다. '하로동선'은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처럼 **때나 상황에 맞지 않아 쓸모없음**을 이른다.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과 물건이 있어도 때에 맞지 않는 상황은 다르다.

③ O: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의 넓은 세계를 모르는 개구리처럼 견식이 좁은 사람을 이른다. '하충의빙'은 여름 벌레가 얼음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견식을 비유한다. 두 표현은 모두 **경험과 시야가 좁아 세상을 널리 알지 못함**을 나타낸다.

④ X: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재목으로 쓰기 어려운 굽은 나무가 베이지 않고 남아 선산을 지키듯,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함**을 이른다. '설중송백'은 눈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높고 굳은 절개**를 뜻한다. 겉보기와 달리 쓸모가 있다는 뜻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조를 지킨다는 뜻은 다르다.

NoteBase

문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① 가는허리 / 잔허리
② 고깃간 / 정육간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육간'은 **표준어가 아니다**. 고기를 파는 가게를 뜻하는 복수 표준어는 **'고깃간'과 '푸줏간'**이다.

선지별 해설

표준어 규정 제26항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모든 형태가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O: '가는허리'와 '잔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의 뒷부분을 뜻한다. 두 형태 모두 같은 의미로 인정되는 복수 표준어이다.

② X: '고깃간'은 표준어이지만 '정육간'은 표준어가 아니다. 고기를 파는 가게를 뜻하는 말의 복수 표준어는 **'고깃간/푸줏간'**이므로, 제시된 짝에서 '정육간'을 '푸줏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O: '관계없다'와 '상관없다'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두 말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복수 표준어에 해당한다.

④ O: '기세부리다'와 '기세피우다'는 남에게 자신의 기운이나 세력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부리다'와 '피우다'가 결합한 두 형태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명의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복남'을 Bok-nam으로 적을 수 있다. '합덕'은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아** Hapdeok으로 적는다.

보기별 해설

ㄱ. X: '오죽헌'은 [오주컨]으로 발음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Ojukeon이 아니라 Ojukheon으로 적는다.

ㄴ. O: 인명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한다. '복남'은 [봉남]으로 발음되지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oknam 또는 Bok-nam으로 적는다. 성의 Kim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쓸 수 있으므로 Kim Bok-nam은 가능한 표기이다.

ㄷ. X: '선릉'은 'ㄴ'이 뒤의 'ㄹ'에 동화되는 **유음화**에 따라 [설릉]으로 발음된다. 이 변화를 반영하여 'ㄹㄹ'은 ll로, 모음 'ㅕ'는 eo로 적으므로 Sunneung이 아니라 Seolleung으로 적는다.

ㄹ. O: '합덕'은 [합떡]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받침 'ㅂ'은 자음 앞에서 p로 적고, '덕'의 'ㄷ'은 된소리 발음에 따른 tt가 아니라 d로 적으므로 Hapdeok이 된다.

옳은 표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무도하가'는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하는 데서 시작하여 임의 죽음과 그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가 사랑·이별·죽음으로 이어지며** 시상이 전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무도하가'와 '황조가'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서정시**로 꼽힌다. 서사시는 사건과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반면, 서정시는 화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다. '공무도하가'는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므로 '서사시'라는 설명을 '서정시'로 고쳐야 한다.

② X: '공무도하가'는 우리말 노래를 한자로 옮긴 **한역 시가만 전하며, 원래의 우리말 노래는 전하지 않는다**. 제시된 네 구가 그 한역문이므로, 한시와 별도로 번역한 시가가 함께 남아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③ O: '公無渡河'는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말로, 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다. '公竟渡河'에서는 임이 끝내 물을 건너면서 이별이 나타나고, '墮河而死'에서는 임이 물에 빠져 죽으므로 물이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 '當奈公何'는 임을 어찌할 것인지 탄식하는 말이다. 이처럼 **물의 상징적 의미가 사랑·이별·죽음으로 이어지며** 화자의 슬픔이 깊어진다.

④ X: 이 작품의 주제는 **임과 사별한 슬픔**이다. '墮河而死'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이는 임이며, '當奈公何'에는 임을 잃고 어찌할 수 없는 화자의 비탄이 담겨 있다. 화자 자신이 거듭 죽어도 충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은 아니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임 그린 상사몽이 ㉠ 실솔의 넋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 접동새 넋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의 '임 그린 상사몽이'는 **박효관**의 시조이고, (나)는 작자 미상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작가가 '모두 미상'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솔(蟋蟀)'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가)에서는 임을 그리는 꿈이 귀뚜라미의 넋이 되어 임의 방에 들어간다는 상상으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O: (가)의 '임 그린 상사몽', '잠을 깨워 볼까'에는 임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잊은 임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나)의 '접동새 넋이 되어',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에도 죽어서라도 울음소리로 임에게 닿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두 작품 모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③ O: ㉡ '접동새'는 두견새를 가리키며 **귀촉도**라고도 부른다. 울음소리를 '귀촉귀촉'으로 듣고, 이를 돌아갈 귀(歸)와 촉나라 촉(蜀)에 연결하여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한 이름이다.

④ X: (가)의 '임 그린 상사몽이'는 **박효관의 작품**이고, (나)의 '이 몸이 죽어져서'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모두 미상'을 '(가)는 박효관, (나)는 작자 미상'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모잘라서'는 **'모자라서'**로 고쳐야 한다. 기본형이 '모자라다'이므로 어간 '모자라-'에 '-아서'가 붙어도 'ㄹ'이 덧붙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팔라서'는 '가파르다'의 활용형이다. '가파르-'에 '-아서'가 붙을 때 '르'의 'ㅡ'가 탈락하고 앞 음절에 'ㄹ'이 덧붙는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 '가팔라서'가 된다.

② X: 수량이 필요한 만큼에 못 미친다는 뜻의 기본형은 **'모자라다'**이다. 어간이 '모자라-'이므로 '르' 불규칙 활용의 대상이 아니다. '모자라-'에 '-아서'가 붙으면 같은 모음 'ㅏ'가 이어져 하나로 줄어든 '모자라서'가 된다. 따라서 '모잘라서'를 '모자라서'로 고쳐야 한다.

③ O: '불살라서'는 '불사르다'의 활용형이다. '불사르-'에 '-아서'가 붙을 때 '르'의 'ㅡ'가 탈락하고 '사'에 받침 'ㄹ'이 덧붙어 **'불살라서'**가 된다. '르' 불규칙 활용에 따른 형태이다.

④ O: '올발라서'는 '올바르다'의 활용형이다. '올바르-'에 '-아서'가 붙을 때 '르'의 'ㅡ'가 탈락하고 '바'에 받침 'ㄹ'이 덧붙어 **'올발라서'**가 된다. 앞 음절 '올'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바르-' 부분에서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다.

NoteBase

문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간'의 '인'은 어근이지만, '한국인'의 '-인'은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같은 한자 '人'이라도 단어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장'은 '늘이다(延)+길게(長)', '하산'은 '내려오다(下)+산에서(山)'로 성분의 의미를 풀 수 있다. '길게'는 동작의 양상을, '산에서'는 동작이 시작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므로, 두 한자어 모두 **서술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부사어에 해당하는 성분보다 앞선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면 '길게 늘이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되지만, 선지는 한자어 내부의 성분 배열을 설명한 것이다.

② X: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단어를 만드는 요소이다. '인간'의 '인(人)'은 어근이지만, '한국인'은 명사 '한국'에 **접미사 '-인'**이 붙어 한국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인'이 모두 어근이라는 설명은 '인간에서는 어근, 한국인에서는 접미사'로 고쳐야 한다.

③ O: 비자립적 어근은 실질적인 뜻은 있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이다. '우정'에서는 '벗'의 뜻을 지닌 '우(友)'가 비자립적 어근이고 '정(情)'은 단어이다. '대문'에서도 '큰'의 뜻을 지닌 '대(大)'가 비자립적 어근이고 '문(門)'은 단어이다. 두 단어 모두 **비자립적 어근+단어**의 구성이다.

④ O: '시시각각'은 '시+시+각+각', '명명백백'은 '명+명+백+백'처럼 각 한자 성분을 되풀이하는 **AABB 방식**이다. 이에 비해 고유어 '구불구불'은 '구불+구불', '하루하루'는 '하루+하루'처럼 두 음절로 된 단위를 통째로 되풀이하는 ABAB 방식이다. 제시된 한자어와 이들 고유어는 반복되는 단위와 배열이 다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길'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열 길', '한 길'로 띄어 쓴다. '물속'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길'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수를 나타내는 말과 띄어 '열 길', '한 길'로 쓴다. '물속'은 물의 가운데를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사람의 속'에서는 조사 '의'를 '사람'에 붙이고, 별개의 명사인 '속'은 띄어 쓴다.

② X: 이 고원의 이름은 **'데칸고원'**으로 붙여 쓴다. 따라서 '데칸 고원은'을 '데칸고원은'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여기서 '만큼'은 명사 '전봇대' 뒤에 붙어 그와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전봇대 만큼'을 '전봇대만큼'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주머니 만들기'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을 뜻하며, '주머니'와 '만들기'는 각각 별개의 단어이다. 따라서 '주머니만들기를'을 **'주머니 만들기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쭈어봤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떠내려갔다'는 '뜨- + -어 + 내리- + -어 + 가- + -았- + -다'로 분석되어 **형태소가 7개**이다. '떠', '내려', '갔'처럼 형태가 줄어든 부분도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센다.

선지별 해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며, 문법적 뜻을 나타내는 어미도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다. 음절 수나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센다.

① '떠내려갔다': 뜨- + -어 + 내리- + -어 + 가- + -았- + -다 → 7개이다. '떠'는 '뜨- + -어'에서 '—'가 탈락한 형태이고, '내려'는 '내리- + -어', '갔'은 '가- + -았-'이 줄어든 형태이다. 따라서 **줄어든 형태 속의 어간과 어미를 각각** 세어야 한다.

② '따라 버렸다': 따르- + -아 + 버리- + -었- + -다 → 5개이다. '따라'는 '따르- + -아'에서 어간의 '—'가 탈락한 형태이고, '버렸'은 '버리- + -었-'이 줄어든 형태이다. 띄어 쓴 두 부분을 합하여 어간 2개와 어미 3개를 센다.

③ '빌어먹었다': 빌- + -어 + 먹- + -었- + -다 → 5개이다. 한 단어인 합성 동사도 **여러 형태소로 나뉜다**. '빌-'과 '먹-'에 연결 어미 '-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구성이다.

④ '여쭈어봤다': 여쭈- + -어 + 보- + -았- + -다 → 5개이다. '여쭈-'는 '여쭈다'의 어간이므로 음절마다 나누지 않는다. '봤'은 **'보- + -았-'**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두 형태소로 센다.

'떠내려갔다'의 형태소는 7개이고 나머지는 각각 5개이므로,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떠내려갔다'이다.

NoteBase

문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① 묻다(問)

② 덥다(暑)

③ 낫다(愈)

④ 놀다(遊)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놀다'가 '노니, 놉니다'로 활용할 때 일어나는 **ㄹ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일정한 환경에서 ㄹ 받침 용언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변화이므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활용은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현상이다. 어간이나 어미의 변화가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되면 규칙 활용이고, 일부 용언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나면 불규칙 활용이다.

① O: '묻다(問)'는 질문한다는 뜻으로, '물어, 물으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한다. 땅에 무엇을 넣는다는 뜻의 '묻다(埋)'가 '묻어, 묻으니'로 규칙 활용하는 것과 구별한다.

② O: '덥다(暑)'는 '더워, 더우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ㅂ이 ㅜ로 바뀌는 **ㅂ 불규칙 활용**을 한다. '더워'는 ㅂ이 ㅜ로 바뀐 뒤 'ㅜ + ㅓ'가 'ㅝ'로 줄어든 형태이다.

③ O: 병이나 상처가 좋아진다는 뜻의 '낫다(愈)'는 '나아, 나으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의 ㅅ이 없어지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한다.

④ X: '놀다(遊)'는 **규칙 활용**을 한다. '놀고, 놀아'에서는 ㄹ이 유지되지만, '노니, 놉니다, 노시다'에서는 각각 ㄴ·ㅂ·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이러한 ㄹ 탈락은 같은 환경의 ㄹ 받침 용언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불규칙 활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ᆞᄂᆞᆫ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짜헤 낫드니.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 시조는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양 대군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절의**를 드러낸다.
백이·숙제가 먹은 고사리조차 주나라 땅에서 났음을 지적하여,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 시조의 작가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이다. 성삼문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으며, 이 작품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드러낸다.

② O: 중의법은 하나의 표현에 둘 이상의 의미를 담는 표현 방법이다. 여기서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은거한 중국의 산과 수양 대군**을 함께 가리킨다. 고사의 공간을 통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 대군을 떠올리게 한다.

③ O: '이제(夷齊)'는 백이와 숙제를, '채미(採薇)'는 고사리를 캐는 일을 뜻한다. 백이·숙제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절의의 문제를 다룬다.

④ X: '주려 주글진들 채미도 하는 것가'와 '긔 뉘 땅헤 낫더니'는 굶어 죽을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마저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질책이다. 절의의 상징인 백이·숙제를 오히려 비판함으로써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양 대군을 임금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충절을 표현한 것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 성삼문은 1456년에 처형되었고 단종은 그 이듬해인 1457년에 죽었으므로, 역사적 선후 관계로도 복수의 다짐이라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는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ᄉᆞ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갇 고기 쒸노ᄂᆞ다.

넌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靑청蒻약笠립은 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ᄉᆞ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두 수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흥취와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다. 뻐꾸기와 버들숲을 감상하고 백구와 어울리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읽을 근거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수는 뻐꾸기 소리, 푸른 버들숲, 안개 속 어촌, 뛰노는 물고기를 통해 생동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다. 둘째 수는 소박하게 배를 타고 나가 백구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백구가 자신을 따르는지 자신이 백구를 따르는지 묻는 종장은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 속 삶의 흥취와 만족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첫 수의 뻐꾸기가 우는 모습은 새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또한 '지국총 지국총'은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표현으로, 배를 젓는 현장감과 흥겨운 리듬을 살린다.

③ O: 첫 수의 초장은 현대어로 풀면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이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여 소리와 빛깔을 대응시키므로 대구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응은 자연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운율도 형성한다.

④ O: 각 수에서 후렴구를 빼면 첫째·셋째·다섯째 줄이 각각 **초장·중장·종장**을 이룬다. 첫 수의 초장이 뻐꾸기 소리 부분과 버들숲 빛깔 부분으로 나뉘듯이 각 장은 두 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후렴구를 제외한 기본 골격은 시조의 전형적인 3장 6구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기>
섶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歷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① 髀肉之嘆
② 招搖過市
③ 不識泰山
④ 麥秀之嘆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뜻한다. 이 작품은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한탄과 무능한 자들이 으스대는 현실을 드러내므로, 나라를 잃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다.

선지별 해설

'섶 실은 천리마'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살진 쇠양마'는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좋은 대우를 받으며 으스대는 사람을 비유한다. 작품의 이러한 상황과 각 성어의 뜻을 비교한다.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천리마가 제 능력을 펼치지 못한 채 '속절없이 다 늙도다'라고 한 데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으므로 작품과 관련이 있다.

② 초요과시(招搖過市): 허풍을 떨거나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남의 이목을 끈다는 뜻이다. '살진 쇠양마'가 '외용지용'하는 모습은 **능력은 부족하면서 겉으로 으스대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이 성어와 연결된다.

③ 불식태산(不識泰山): 태산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로, 뛰어난 인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함을 비유한다. '천리마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라는 구절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므로 이 성어와 관련이 있다.

④ 맥수지탄(麥秀之嘆):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뜻한다. 작품에서 한탄하는 것은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처지와 무능한 자들이 우대받는 현실이다.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네 성어 가운데 작품과 가장 관련이 없다.

NoteBase

문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④ 톺아보다: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안다미로'는 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이다. '밥을 안다미로 담다'처럼 담긴 양이 많음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멸차다'는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는 뜻이다. **재산·자원의 넉넉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제시된 뜻풀이와 일치한다.

② O: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뜻한다. 눈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뜻풀이의 대상은 **나무나 풀에 생긴 서리**이다.

③ X: '안다미로'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예를 들어 '밥을 안다미로 담았다'는 밥을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담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라는 태도를 나타내는 뜻풀이로는 설명할 수 없다.

④ O: '톺아보다'는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는 뜻이다.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는 것**을 나타내므로 제시된 뜻풀이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 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字를 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수ᄇᆡ 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ᆞᄅᆞ미니라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④ 'ㅏ'와 'ㆍ'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내'는 오늘날의 **'내가'**에 해당하며, 새 글자를 만든 주체인 **세종대왕 자신**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세종이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를 밝힌 서문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기>는 **두 문장**이다. 첫 문장은 나라의 말이 한자와 통하지 않아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하며 '하니라'에서 끝난다. 둘째 문장은 '내'로 시작하여, 새 글자를 만들어 백성이 편리하게 쓰도록 하려는 뜻을 밝히며 끝난다.

② X: '시러'는 **得(득)**에 해당하며, 이 문맥에서는 '능히'라는 뜻이다. '제 뜻을 시러 펴디 몯할'은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짐을 싣는다는 뜻의 '載(재)'에 대응시키면 안 된다.

③ O: 이 부분은 세종이 지은 서문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므로, 말하는 이인 세종이 '내'로 자신을 가리킨다. 여기서 '내'는 1인칭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로, 현대 국어의 **'내가'**에 해당한다. 뒤에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체도 세종이다.

④ X: 선지의 'ㆍ'는 모음 글자 **아래아(ㆍ)**를 가리킨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ㅏ'와 'ㆍ'는 **서로 다른 소리값을 지닌 모음**이었다. 같은 발음을 단어 구별을 위해 다르게 적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음을 각각의 글자로 적은 것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ㅅ새처럼 날아갔구나!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③ 물먹은 별
④ 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새까만 밤'은 화자와 죽은 아이 사이의 단절을 드러내는 **죽음의 세계**를 뜻한다. 나머지 시어들은 그리움의 대상인 죽은 아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 시는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슬픔을 노래한다. 시어의 내적 연관성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 문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① 차고 슬픈 것: 유리에 어린거리는 **죽은 아이의 영상**이다. '차고'에는 생명을 잃은 대상의 차가움이, '슬픈'에는 아이를 잃은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② 새까만 밤: 창밖의 어둠을 통해 **죽음의 세계와 단절감**을 나타낸다. 유리를 거듭 닦아 보아도 밤이 밀려와 부딪치는 모습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③ 물먹은 별: 눈물 어린 눈에 비친 별에 **죽은 아이의 모습**을 투영한 표현이다. 별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에는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④ 늬: 화자가 직접 부르는 **죽은 아이**이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와 '산ㅅ새처럼 날아갔구나'는 아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드러낸다.

①·③·④는 모두 죽은 아이를 가리키지만, ②는 아이가 속한 죽음의 세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시어들과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②의 '새까만 밤'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괄식 설명문이므로 **전체 설명 대상인 문장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다. 이어 어절과 문장 성분의 기본 관계를 설명하고, 여러 어절이 한 성분을 이루는 사례를 제시한 뒤 구와 절의 개념으로 설명을 확장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runs → ㉠ → ㉢ → ㉡

�runs: 두괄식은 중심 내용을 앞에 제시하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성이다. 이 글은 문장의 구성 단위를 설명하므로, **문장의 개념과 구성 성분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을 처음에 둔다.

㉠: 앞에서 문장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이어서 그 구성을 설명하는 기본 단위인 어절을 소개한다. 특히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기본 관계**를 제시하여 뒤의 설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앞의 기본 관계와 달리 **여러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 남자가'는 두 어절이 모여 주어 역할을 하는 사례이다. 어절의 개념을 소개한 뒤 이런 경우를 제시해야 기본 관계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앞에서 제시한 여러 어절의 결합을 구(句)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절이 구 및 문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한다. **앞의 사례를 개념으로 정리하고 관련 단위로 설명을 확장**하는 부분이므로 마지막에 놓는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기>는 유학자의 생각을 주희와 정약용의 구체적인 견해로 풀어 설명하는 **예시**를 활용한다. ③도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무지개 색깔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예시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보기>는 유학자들이 백성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에 이어, 주희의 신민과 정약용의 친민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친민의 의미를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에게 자애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① 분류: 상위 범주인 시를 서정시·서사시·극시라는 **하위 유형으로 나눈다**.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 시의 성격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② 비유적 정의: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고 규정하여 소의 모습을 **권태를 느끼는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다. 일반적인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방식과는 다르다.

③ 예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설명 뒤에,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고 판단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추상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이해시키므로 <보기>에 활용된 예시와 가깝다.

④ 분석: 하나의 대상인 곤충을 머리·가슴·배라는 **구성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있는 기관을 설명한다. 대상을 여러 종류로 나누는 분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예시와 구별된다.

<보기>에는 주희와 정약용의 견해를 대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③과 공통되는 설명 방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예시이다.

NoteBase